

11월부터 자녀 2명 있어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청약 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임대주택 계속 거주하려면 고가 차량 구입 안돼

오는 1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주택 청약 혜택이 확대된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그만큼 지원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결정했었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서는 2자녀 이상 다자녀 특공 기준을 공공주택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약 하우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계약약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을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둔 것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은행, 모바일 아파트 대출금리 우대

500억 한도 연 1.2%P 쿠폰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3일 창립 55주년을 맞아 'KJB 모바일 아파트 대출' 우대금리 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품 특징을 살려, 어플을 통해 대출 예상한도 및 금리 조회를 실시한 고객이 이벤트 대상이다. 판매한도는 500억원으로 선착순으로 최고 연 1.2%포인트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사용 시 0.3%포인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 시 0.4%포인트 ▲대출 갈아타기(대환) 및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 신청 시 0.3%포인트 ▲신규 구입자금 신청 시 0.2%포인트 등. 우대금리 쿠폰까지 적용하면 최고 연 2.2%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7%를 적용받을 수 있다. KJB 모바일 아파트 대출은 100% 비대면 대출 상품으로 ▲신규 구입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목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변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고금리 시대에 고객들의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해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시행, 복잡한 조건 없이 손쉽게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을 통해 많은 고객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대기업 '세자릿수 신입 채용' 사라졌다

하반기 채용 확정 기업 줄고 규모도 줄어...대기업 10곳 중 8곳·중견기업 54% '확정'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가량이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용을 확정된 기업이 작년보다 줄었으며, 채용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보수적으로 잡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11~25일 국내 기업 727곳(대기업 104곳, 중견기업 147곳, 중소기업 476곳)을 대상으로 채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가운데 78.8%가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일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작년보다 9.6%포인트 하락한 54.4%가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은 25.2%로, 작년 대비 15.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했다는 중소기업 비중은 58.0%였다. 이는 작년 대비 9.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채용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밝힌 기업 중 채용 규모가 확정된 31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두 자릿수를 뽑겠다는 기업이 70%로 가장 많았다. 한 자릿수는 30%였다. 세자릿수를 뽑겠다는 곳은 없었다. 중견기업은 한 자릿수 74.4%, 두 자릿수 23.1%, 세 자릿수 2.6%였다. 지난해 세 자릿수 채용을 했던 기업들이 두 자릿수로 규모를 줄이면서 대규모 채용이 사라졌다고 인크루트는 분석했다. 이날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기업 10곳 중 7곳이 하반기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69.5%가 '하반기에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26.2%는 '미정'이라고, 나머지 4.3%는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인원을 묻자 기업 1곳당 평균 12.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기업 1곳당 평균 고용 인원인 19.3명과 비교해 6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잡코리아는 "하반기 고물가와 불투명한 국제 경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무역협회, 7년만에 광주·전라 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업체 23곳·구직자 100여명 참여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3 광주·전라 수출입 기업 잡투게더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아카데미 취업연수실과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경제자유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채용박람회와 무역협회 채용설명회, 취업스킬 교육, 유관기관 채용지원사업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무역업계 전용 채용박람회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사전 설문조사에 기반해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애로를 파악하고 기획했다. 지난 6~7월 무역업계 구인기업과 구직자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력채용 애로로 기업들은 '지원자 및 적합자 부족', 구직자는 '공고 부족 및 채용인원 부족'을 꼽았다. 구직자들은 취업 애로 해소를 위해 '채용정보 제공', '취업 알선', '자기소개서 교육', '지방에서의 채용·취업 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협회는 광주전남지역에서 7년 만에 무역업계·무역인력 전문채용박람회를 열게 됐다. 배터리 제조설비 국내의 1위 기업 ㈜무진서비스와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다케이를 비롯해 지



'2023 광주·전라 수출입 기업 잡투게더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관계자들이 채용설명회를 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역 대표 무역업체 23개사와 지역 구직자 100여명이 참가했다. 부대행사로 무역협회 채용설명회 및 취업스킬업(Skill-Up) 세미나도 진행됐고, 특성화고와 직업훈련기관 수강생 등 100여명의 잠재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1대 1 채용설명·상담도 이뤄졌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방 무역업계의 인력부족과 청년 취업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방 무역업계의 인력난 극복을 위해 구인·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달려라! MZ농촌복지센터' 운영 동신대생 등 참여 고령 농업인 대상 봉사활동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23일 동신대와 광주시 광산구 동곡 일대에서 '달려라! MZ농촌복지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신 본부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동신대 부티미용학과와 생활체육학과, 안경광학과, 전기공학학과 학생 및 교수 등 30명은 고령 농업인과 취약계층 80여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동신대학생들은 이·미용, 네일아트, 스포츠테이

핑 치료, 검안·시력교정 등 재능기부를 펼쳤고,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노후된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여름방학 중에도 농촌지역을 찾아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학생 및 교직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 광주본부는 농촌지역 복지와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8월 제조업 경기 개선

광주·전남지역 8월 제조업 경기가 전월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8월 지역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2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올랐다. 다음달 업황전망BSI 역시 지난달보다 15포인트 오른 76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업황BSI는 67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업황 BSI는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으로 답한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5월 43으로 바닥을 찍었던 경기지수는 최근 2년간 60~70대에

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제조업 매출BSI는 69로 전월 대비 3포인트 떨어졌으나 다음 달 매출전망BSI는 77로 11포인트 올랐다. 신규주주BSI와 다음 달 신규주주전망BSI는 75와 80으로 전월 대비 각각 6포인트와 15포인트 상승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0.8%), 불확실한 경제상황(17.1%),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5.3%), 수출부진(10.1%) 등의 순이었다. 조사는 지역 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중 585개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이뤄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KDN,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지원

한전KDN은 23일 '함께 일하는 재단'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 KDN은 해외 마케팅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10개사 선정해 지원한다. 참여 기업들은 지난 6월 모임을 통해 이달 초 선정됐으며, 기업의 제품 홍보와 수출을 위한 해외 구매자와의 1대 1 매칭 상담부터 수출계약 체결까지 지원한다. 한전KDN은 지난 18일에는 '함께 일하는 재

단'의 WT교육장에서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향후 진행될 수출상담회 계획과 수출계약과 관련한 기초교육, 참여기업 정보와 사업 아이템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기업간 사업 공동 수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김장현 사장은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훌륭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등 여러 여건상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동반성장 환

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5.50(-10.24)
↓ 코스닥	882.87(-10.46)
↓ 금리(국고채 3년)	3.771(-0.031)
↑ 환율(USD)	1339.70(+4.20)